

## [큐티 세미나] 큐티노트 활용하기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성경을 읽고 혼자 생각만 하고 큐티를 끝낼 것이 아니라 노트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큐티를 기록하면 목상이 정리되고 싶어진다.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훈련이다. 말로 하려면 잘하는데 정리를 하려면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안된 것이다. 누구나 훈련을 하면 말이나 글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다.

큐티를 기록하면 적용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서 좋다.

또 나중에 그 노트를 다시 볼 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을 잊어버리기 쉽다. 그러나 기록해 두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영원히 남게 된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매일 큐티를 하면서 쓴 글이 후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과 은혜를 준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과 솔직한 적용을 노트에 남겨 놓으면 후손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큐티 노트를 유산으로 남겨라.

어떤 아버지가 망나니처럼 사는 20대 아들에게 “아들아, 저기 저 노트가 내가 네 나이 때 기록한 큐티 노트란다. 한번 읽어보렴”하고 말하자 그 아들은 아버지가 20대에 큐티하고 말씀대로 산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일주일 동안 설교를 여러 번 해야 한다. 어떻게 이 많은 설교를 모두 준비하겠는가?

나는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큐티 노트를 꺼내 본다. 내가 이전에 이미 은혜를 받은 본문이기에 언제 읽어도 감동이 있다.

나는 그 노트 내용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한다. 내가 은혜를 받은 부분을 바탕으로 설교하면 언제나 큰 감동이 있다. 큐티 노트는 목회자에게 보화와 같다.

일 년 정도 지난 후에 그 노트를 다시 펴보라. 그 큐티 노트는 일년 동안

내 적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거울이 된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기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큐티 노트는 자신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지만 남을 위해 기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의식하면 적용을 진실하게 기록할 수 없다,

큐티 노트와 일기는 많이 다르다. 일기는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이고, 큐티 노트는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평가 받고 반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와 큐티를 혼동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일기는 안 쓰더라도 큐티는 매일 기록하길 바란다.

- '큐티 리더 누구나 할 수 있다' 김원태 저 / 두란노

\* 출처 : 온누리신문